



| | |
|--------------|---|
| 제목 | Intoxication, Earthly and Heavenly: Seven Studies on the Poet Hafiz of Shiraz |
| 발행언어 | 영어 |
| 발행처 | Peter Lang |
| 발행일 | 1991. 9. 1. |
| 저자 | M. Glünz, J. Ch. Bürgel(편집자) |
| 출판국가 | 스위스 |
| 페이지수 | 164 |
| ISBN 또는 ISSN | 978-3261044037 |

내용 요약

『도취, 지상에서도 하늘에서도』는 하피즈 사망 6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출판된 책이다. 종교적 용어 사용에 있어서의 애매함(Ambiguity in the use of religious terminology), 하피즈 수용(The reception of Hafiz), 시인의 심장과 가잘의 시적 체계(The poet's heart and the poetic system of the ghazal), 하피즈 읽기(Lire Hafiz), 허구로서의 가잘(The ghazal as fiction), 가잘의 어휘 구조(La structure lexicale des ghazals), 하피즈: 나쁜 친구?(Hafiz: a false friend?) 등 총 7편의 논문 또는 수필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의 편집자들인 글린츠(M. Glünz)와 뷔르겔(J. Ch. Bürgel)은 독일 출신 페르시아 고전 시 연구자들로 뷔르겔은 1931년 고테스베르크(Gottesberg)에서, 글린츠는 1954년 다우힝겐(Dauchingen)에서 태어났다. 이 두 사람 사이에 20년 이상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고 두 사람 다 고향을 떠나 있었지만 스위스 베른 대학교 이슬람 학과에서 맺은 인연이 계기가 되어 오래 같은 길을 걷게 된다.

얼핏 보면 책의 제목과 이 책에 수록된 논문(수필)의 제목 사이에 상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피즈가 지상에서 연인에게 취하고 천상의 연인인 신에게 도취한 것처럼 하피즈의 연구자들도 하피즈에게 취해 있기 때문에 하피즈의 지상과 천상에서의 취기가 하피즈 연구자들이 쓴 글에 그대로 배어있다.